**주님은 아십니다**

<시편 139편 1-14절>

1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1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13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은 다윗이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진실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가사로 삼은 찬양 하나를 함께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찬양이라 좀 죄송합니다만,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진 않으실 것입니다.

**O God You search me and You know me**

O God You search me and You know me

All my thoughts lie open to Your gaze

When I walk or lie down You are before me

Ever the maker and keeper of my days.

You know my resting and my rising

You discern my purpose from afar

And with love everlasting You besiege me

In every moment of life or death You are.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Lord

You have known its meaning through and through

You are with me beyond my understanding

God of my present, my past and future too.

For you created me and shaped me

Gave me life within my mother’s womb

For the wonder of who I am I praise You

Safe in Your hands, all creation is made new.

- Bernadette Farrell, Psalm 139

해석 잘 되시죠? 다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번역한 한글 가사로 그 뜻을 한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이 당신의 눈 앞에 있습니다.

내가 걷거나 누울 때, 당신은 내 앞에 계십니다.

영원히 내 모든 날들의 창조자요 지탱자가 되십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내 모든 행위의 속뜻을 멀리서도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둘러싸십니다.

내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에 당신은 그러십니다.

오 주님, 내 혀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당신은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 이해를 초월하여 그렇게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내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내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나를 창조하시고 형성하셨습니다.

내가 모태에 있을 때에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존재가 너무 경이로와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는 당신의 손 안에서 안전하며, 또한 새롭게 빚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피십니다. 열려진 책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구요? 예, 물론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체험되며 확신되는 부분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나라는 이름의 꼬마 여자아이가 자기 옷을 살짝 들추고는 그 안에 대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계신가요?” 아무 응답이 없자 제나는 조바심이 나서 견디지 못하겠던지 결국 여섯 살 난 소녀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굵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대신해 대답합니다. “그러하니라!”

“하나님, 이 안에 계신가요?” 이 여섯 살 소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묻고 있는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엔 오직 믿음으로만 대답될 수 있고, 지금이 바로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사실이 기분 나쁜 일로 느껴질 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살면서 힘든 순간은 닥칩니다. 자신의 한계와 맞닥뜨리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떨칠 수 없는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것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피시므로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내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낮에 우리가 분주히 뛰어다니며 일할 때,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내 계획대로 술술 진행되는 일들, 매일 큰 문제없이 반복되는 일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탱하신 결과입니다. 내 계획이 막히는 순간들, 예상치 않게 끼어드는 문제들, 그것은 주께서 내 삶을 창조적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누울 때, 그리고 아침에 다시 깰 때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때로 근심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 때가 있지만,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새 하루를 시작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모든 날들의 영원한 창조자요 지탱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군인의 안고 일어섬은 생사와 직결됩니다. 늘 이만큼 긴장되는 상황은 아니라해도,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고, 그 책임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려야 할 때와 분연히 일어나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나는 행동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그 행위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마음의 동기와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속뜻을 하나님은 멀리서도 분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것도 주님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묘히 타인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분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정직히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나 자신을 정직히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그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도무지 삶을 영위해나갈 수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의 속뜻을 멀리서도 분별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내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된 친구처럼, 우리의 마음을 소리없이 헤아리십니다. 내 혀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말하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도 입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뿐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기도입니다. 밤새 날개를 펄럭이며 바다 위를 날다가, 새벽이 되어 바다 끝에서 마지막 날개짓을 하는 작은 새 한 마리처럼, 이제 나는 누구의 손도 미치지 않는 막다른 곳에 와있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 혼자 뿐이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더 분명히 의식됩니다. 내 기도가 막히는 그 지점에서, 나를 대신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는 더 분명히 의식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 나를 덮고 있는 이 어둠조차도 당신의 눈에는 밝히 드러나리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이해를 초월하여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영원한 사랑의 시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내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형성해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선하신 목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 사람의 존재 가치는 세상에서 흔히 그러하듯 서로간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각 사람을 만드신 분의 창조 목적과 가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즉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보셨고 또한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 빚어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이제껏 별 어려움 없이 살아왔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 인생에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나 그런대로 자존감을 유지하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한 학급동료에게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어이없이 맞고난 후부터, 자존감이 급격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내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체험한 것입니다. 이 결핍의 상태를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갔지만,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할 동기와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뒤부터, 제 자존감은 조금씩 회복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한 젊은 영혼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가 바로 산 증인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보고자 했지만, 곧 제 인생의 목표는 수정되었습니다.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던 바로 그 복음이 너무도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언제부터인가 저 역시 나를 지금의 이 모습까지 빚어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이해를 초월하여 나를 가장 나 다운 모습으로 빚어오셨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고귀한 존재가치를 얻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온 세계는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안전하며, 또한 새롭고 온전하게 빚어집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찬 눈빛과 마음으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을 향해 물으십시오. “하나님, 정말 매 순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십니까?” 만일 아무 대답이 없거든, 여섯 살 소녀처럼 “그러하니라” 믿음으로 대신 대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정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며,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심을 체험으로 알게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들었던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다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매순간에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아시듯, 저희도 당신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잘 아시는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의탁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꼬빌리시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